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션 17,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음, 그림과 주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음,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함, 그림과 주제, 몸, 성전, 그리고 결혼입니다.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다음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소중한 아버지, 영원한 시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1세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셔서 그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총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과 그의 언어와 문학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 중 일부를 연구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 언어의 사용,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동료였던 실라노와 디모데를 이 서신의 공동 발신자로 포함시킨 후, 그 교회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오직 이 두 곳에서만 믿는 사람들을, 인용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용문 닫기, 전치사 in 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에 붙입니다.

아버지 와 아들 과의 연합을 바울이 아닌 것으로 썼다는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 그러나 편지 자체에서 바울이 무엇이고 무엇이 바울이 아닌지 정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에게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서 각 서신의 첫 구절, 사실 두 번째 서신의 처음 두 구절에서 FF 브루스는 인용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 대한 브루스의 주석 .

브루스의 추론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특히 진 그린, 고든 피, 레온 모리스를 설득하여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각자의 주석을 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두 서신에서 서두에 쓴 말의 독특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가 데살로니가후서에 대해 말한 것은 정확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을 반복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두 서신의 첫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 그린

인용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높임받은 주 예수와의 연합 또는 관계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독특한 장르와 관용어로 바울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믿는 자들을 대신한 예수의 기도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겹칩니다.

요한이 아버지께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말씀, 21절을 보고한 것은 바울의 서신서,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대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신격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고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시킴으로써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체계적 신학자로서, 나는 성령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바울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의 서사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성육신하지 않고, 그와 함께 죄 없는 삶을 살지 않고, 그와 함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며, 그와 함께 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많은 구속적 경험에 참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묻히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승천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고,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와 함께 다시 올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결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와 연합될 때 그의 이야기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부터 그의 재림과 그 이후까지 모든 것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적어도 12개의 본문, 즉 로마서 6:1~14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7:4~6. 로마서 8:15~19. 고린도후서 4:8~14. 갈라디아서 2:17~20.

에베소서 2 :4~10. 빌립보서 3:8~11. 골로새서 2:11~15, 2:20~2:23.

골로새서 3:1~4:1, 데살로니가전서 5:9, 10. 디모데후서 2:11~13.

만약 누군가가 반복을 원한다면. 로마서 6:1-14. 로마서 7:4-6. 그리고 8:15-19. 고린도후서 4:8-14. 갈라디아서 2:17-20. 에베소서 2:4-10.

빌립보서 3:8-11. 골로새서 구절, 2:11-15. 2:20-23. 3:1-4: 1

데살로니가전서 5:9, 10 그리고 디모데후서 2:11-13.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에서 많은 사건에 참여하는데 , 여기에는 그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17. 빌립보서 3:10. 그의 죽음--로마서 6:3과 다른 많은 본문들. 로마서 6:3, 6, 8, 7:4. 그리고 저는 그 구절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의 장사. 로마서 6:4. 골로새서 2:12.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에 참여한다. 에베소서 2:5. 골로새서 2:13. 그들은 영원한 삶으로 이해되는 그의 삶에 참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0. 디모데후서 2:11.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 로마서 6:4, 5:8, 7:4 등.

그들은 하늘에 앉는 것을 공유합니다. 오직 에베소서 2:6. 그들은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것을 공유합니다. 오직 골로새서 3:3. 그들은 그의 재림을 공유합니다. 골로새서 3:4. 로마서 8:19. 그들은 그의 영광을 공유합니다. 로마서 8:17.

그리고 그들은 그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12.

당신은 잠깐만요. 당신이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글쎄요 , 바울은 그의 이야기의 네 가지 다른 측면을 전달하기 위해 겹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난, 죽음, 매장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말합니다.

살아남, 삶,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앉는 것과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것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림은 모두 그의 재림, 그의 재림, 그의 영광, 그의 통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부터 그의 재림과 통치까지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그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와 결합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몇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화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은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죄 없는 삶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효과가 칭의에서 우리에게 귀속되기는 하지만, 고린도후서 5:21.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여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천상 현존에서 완성된 일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의 중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건들은 오직 그에게만 해당되며 공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죄 없는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소통한 차트와 그 기반이 되는 본문에서 그의 고난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고난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1:24, 25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생각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용문: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 고난을 기뻐하고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그의 몸, 곧 내가 목사가 된 교회를 위해 채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적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전파합니다. 바울의 고난과 다른 신자들의 고난은 구속적이지 않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결합된다는 의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으로 시작되어 그의 재림과 통치로 끝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골로새서 3:4는 신자들에게 재림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구속자이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연합은 너무나 친밀하고, 확실하며, 영구적이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돌아와 통치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가 그와 우리의 연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아들 또는 딸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에 그것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는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나는 이 시대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서 8장, 18장, 19장). 우리는 다만 나타날 뿐이며, 다만 계시를 가질 뿐입니다. 이는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이며,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서 실제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계시를 받을 때에만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18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4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영광스러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가 죄의 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9가지 구속 행위가 있는데,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죄 없는 삶으로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구속적 성취의 핵심과 영혼,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5가지 필수적인 결과, 그의 승천, 세션, 영을 주심, 중보,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책, 아들에 의해 성취된 구속, 그리스도의 사역의 개요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9가지 구속 행위를 다루고, 그 다음에 6가지 성경적 그림, 구속, 화해, 형벌 대속, 승리 등과 같은 그 행위들을 해석하는 주요 그림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의 구원 성취의 중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의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죄의 모든 측면, 과거, 현재, 미래의 결과에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은 우리를 정당화에서 죄의 벌로부터 구해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인용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당화의 반대인 정죄가 없습니다(로마서 8:1). 정죄는 정당화의 반대인 바울의 것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이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에 근거합니다. 정죄는 죄인의 생각, 말,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칭의와 정죄는 마지막 날의 재판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직 아닌 패턴의 미덕으로, 그러한 판결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미리 발표됩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스도의 화해와 의로움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로마서 3:25, 26, 로마서 5:18, 19). 따라서 과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칭의에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근거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점진적 성화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데, 이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로마서 6:4.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 속으로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과거의 죄의 결과, 즉 칭의에 있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를 극복함으로써 현재에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주의 속죄와 부활의 삶은 미래에 영광과 최종 성화에서 우리를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데, 이는 여러분이 추측하셨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이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5:9.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화해된 것보다 더욱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행위에 합류함으로써, 그 중심은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합류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차원에서 죄의 끔찍한 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죄에 대한 처벌, 죄와 그 권세의 현재 지배 또는 폭정, 미래의 죄의 존재에 대한 해독제이며, 각각 칭의, 점진적 성화,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화와 최종 성화에서, 죄의 판결, 권세, 그리고 존재를 뒤집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들 각각을 다룰 때, 칭의, 점진적 성화, 영광화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죄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아들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적용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의 다음 그림과 주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 결혼, 새 옷, 그리고 그림이 아니라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진 주제가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졌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주제는 내주함인데,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함께 모으고 싶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림과 주제.

여기서 우리는 여섯 장의 사진과 주제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대표적인 텍스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목 그림 아래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그의 그림과 다른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 결혼, 새 옷,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함.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 이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로마서 12:4와 5. 고린도전서 6:15와 16. 고린도전서 12:12에서 27. 에베소서 4:4에서 6, 11에서 12, 15에서 16. 에베소서 5:23과 29에서 30. 골로새서 1:18. 골로새서 1:24. 골로새서 2:18, 19. 골로새서 3:15. 만약 누군가 확실히 적어두고 싶어한다면, 로마서 12:4와 5. 고린도전서 6:15와 16. 12:12에서 27. 에베소서 4:4에서 6, 11에서 12, 15, 16. 5:23. 5:29에서 30. 골로새서 1:18. 1:24. 2:18, 19, 3:15.

그리스도의 몸 그림은 많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머리됨과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18.

머리의 몸 이미지는 유기적이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결합을 암시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18.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에 대한 암시이며, 바로 앞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창세기 1:1을 다시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창조주였고, 지금은 모든 것의 재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시작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는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는 교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시작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골로새서 1:18.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머리, 그리스도에게 머리됨을 귀속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몸에 생명을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권위자임을 말합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자신의 백성, 교회에 대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은 생명의 근원과 권위적 인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23. 골로새서 1:18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27.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 안으로의 통합을 표현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단순히 한 몸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한 교회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는 너무나 고정되고 너무나 진부해져서 바울이 교회의 연합을 언급할 때, 단순히 한 몸과 한 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속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곧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 안에 계십니다. 그는 이 말로 목록을 시작합니다. 한 몸이 있습니다. 그는 한 그리스도의 몸, 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머리, 그들의 생명의 근원, 그들의 권위인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용어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비유 그 이상입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의 연합으로 창녀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를 죄에 연루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의 지체들을 창녀와 합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결혼 은유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머리됨과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몸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성령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액체를 마시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주셨고,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13. 13절의 두 진술을 함께 해석한 삼파와 로스너는 결론지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영으로 마시거나 적시는 것은 영의 경험이며, 여기와 다른 곳에서는 영의 세례 또는 영의 세례라고도 합니다. 인용문은 기둥 신약 주석 시리즈에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의 유대이며, 따라서 다른 신자들과도 연합합니다. 영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서로 연결하는 연결점입니다.

그러나 신체 이미지에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적이고 법인적 기능과 수직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지체가 인간 신체에서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이 은유는 믿는 이들, 지체들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데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연합의 단체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항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수직적 측면에 기초합니다. 단체적이고 수평적, 우리의 신체 지체가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속합니다.

이 생각은 또한 법인이며, 인간의 몸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5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에게 주님을 적절히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로마서 12:6~8. 바울은 로마서 12:14~26에서 교회의 다양한 신체적 지체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을 동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의 지체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몸의 다른 지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은 몸의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21~26.

그러니까,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로마서 12:15-20.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로마서 12:21-26. 물론, 목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조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 구원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믿을 때 예수님과 결합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에 속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와 그의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결합됩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머리와 몸의 부분들이 함께 일하여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오, 맞아요, 우리의 일조차도 그의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는 그의 힘으로 노력하고, 그의 힘으로 투쟁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영광을 얻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12, 4:16, 골로새서 2:19. 결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 요점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는 몸의 머리, 교회의 몸의 머리이며, 그 자신이 그 몸의 구세주입니다.

에베소서 5:23. 창조와 구원에서 탁월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의 교회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18. 둘째, Herman Ritterbaugh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설명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잘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그리스도론적 존재 양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와와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16-17, 6:19-20,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19-22. 첫 번째 요점은, 저는 이것으로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성전 이미지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신자들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Ciampa와 Rosner가 올바르게 대담함이라고 부르는 요점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규모를 배경으로 이 개념을 강조합니다. 인용문, 우리는 바울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작은 유대교 종파였다고 주장한 것의 대담함, 아니 노골적인 우스꽝스러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생각에 솔로몬 성전의 종결은 유배에서의 귀환도 아니고, 헤롯 성전의 건축도 아니고, 주로 이스라엘의 살해된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고린도의 작은 다툼 무리의 존재였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린도전서 3:16-17). 그것은 대담한 진술이며,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자들, 이 엉망진창인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울이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이 경우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합칩니다. 인용문,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22. 인용문, 그리스-로마 성전에 있는 신들의 이미지의 보편적인 존재는 어쨌든 21세기 미국 독자보다 1세기 독자들에게 그 원리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면서, 신이나 여신의 이미지, 소문자 g는 보통 크기나 우상의 수, 또는 둘 다로 성전을 지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자체가 추론의 동등성에 의해 믿는 자의 육체적, 일상적 삶의 전체에 대해 이교도 사원의 신들의 이미지와 동일한 영향력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로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토니 시슬턴, 고린도 전서, 신국제 그리스어 성경 주석,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학식이 풍부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겠지만, 상급자에게는 Thistleton이 정말 사려 깊습니다. 기업성. 실제로 인용하자면, 신의 현존은 그의 백성의 성전 지위를 구성하며, 그것 없이는 그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Thistleton이 다시 선언했듯이요.

분명 성전 이미지는 기업체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므로 이 이미지조차도 개성을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아들 안에서 경배받는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재빨리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바울의 성전 이미지 결론.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 슬래시 성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한 번은 직접적으로, 에베소서 2:19-22, 세 번은 간접적으로, 고린도전서 3:16, 17, 6:19, 20, 고린도후서 6:16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솔로몬 왕의 신성하게 위임받은 웅장한 성전을 대담하게 대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안에 개별적으로 거하시며, 저는 그것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성전 이미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 안에 공동체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성도들로 구성된 이 성전을 묘사하는데, 그곳에서 삼위일체는 우리 눈앞에서 지어지고 있는 과정처럼 경배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결혼. 바울은 세 구절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고린도전서 6:15-20. 고린도후서 11:1-5. 에베소서 5:22-32. 이것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15-20. 그리스도와의 연합,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연합에 대한 바울의 가장 친밀한 그림이 이 세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6:15-20은 그 구절들 중 가장 친밀한 구절인데, 인간의 몸과 성적 연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회중의 어떤 남성들이 신학적 논증을 사용하여 성전 매춘부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들은 영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몸을 사용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요점으로 주장합니다. 성령과 인간의 몸 사이의 그들의 생각에서 근본적인 이분법에 주목하세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그리스인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기분 나쁘게 한 사도, 그게 맞는 표현인데, 연합이라는 개념에 세 가지 호소를 합니다.

첫째, 바울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도록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6:16, 창세기 2:24를 인용. 첫 번째 쌍은 인간 삶의 패턴을 설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배타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 그 배타성과는 반대로 바울은 다른 결합에 대해 언급합니다. 인용문,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따르면, 고린도 남성들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해 정하신 일체성과 영속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메시지가 필요한 교회에 신체와 그 행동에 대한 높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21세기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같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부 고린도 남자들이 주장했듯이 매춘부와 성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성의 연합은 서로에게 평생 충실을 맹세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셋째, 매춘부와 성관계는 창조주의 결혼 조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삼파와 로스너는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영적 결혼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용문: 창세기 2:24 는 바울이 충실함과 순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영적 결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16과 17에서 두 가지 상호 배타적인 대안, 즉 창녀에게 붙는 것과 주님께 붙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본문은 창녀와의 성적 결합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혼인 또는 결혼 결합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울의 주장은 16절과 17절에서 결합에 대한 세 가지 호소를 쌓아올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는 결혼, 신부 또는 신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영적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 되느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이 되느니라"와 평행을 이룹니다. 둘 다 사람들이 합해지고 합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점은 끝납니다. 한 경우에는 창녀와 합쳐져 그녀와 한 몸이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주 예수님과 합쳐져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가 결론을 내리면, 바울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과 창녀들의 연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몸은 그들을 사신 예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1~5. 이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은 것을 참아 주었으면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켜서 그리스도께 순수한 처녀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신성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당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빛나갈까 두렵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기꺼이 참는다. 사실, 나는 내가 이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적들에 대항하여 사도적 사역을 옹호했다.

왜 그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1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조금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말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이 슈퍼 사도들이 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충분히 참아냅니다(4, 5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위태롭고 고린도인들의 영적 복지가 위태로워서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한 남편, 곧 그리스도에게 약혼시킨 사람처럼 아버지처럼 말합니다(2절). 성경적, 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고대 동양 문화에 따르면, 딸을 잠재적인 남편과 결혼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 동안 약혼자에게 순결한 충실함을 지킬 책임을 맡습니다. 폴 바넷의 고린도후서 역시 매우 좋은 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인인 신부와 신랑인 예수님 사이의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의 결혼으로 강력하게 적용합니다.

사도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빛나갈까 두려워합니다. 3절에서 인용을 단습니다.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은 약혼한 배우자인 예수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해리스의 말에 따르면 거짓 복음에 대한 간통한 유혹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용문입니다. 우리도 사기꾼의 유혹에 대해 경계해야 영적 간통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신성한 남편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결혼 그림 아래의 마지막 본문은 에베소서 5:22~32입니다. 고린도전서 6:16, 17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결혼으로 연합을 묘사한 바울의 구절 중 가장 친밀하고, 고린도후서 11:1~3이 가장 강력한 적용을 한다면, 에베소서 5:23~32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2:24를 인용한 후, “인간의 결혼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는 깊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에베소서 5:32. 주목할 점은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그림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모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콘스탄틴 캠벨이 이 본문에서 도출한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에 대한 세 가지 결론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그의 자신의 결혼은 둘 사이의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는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결혼이라는 은유는 둘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 신부가 결혼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녀의 사랑하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 — 23, 24절.

이 결합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훼손하지도 않고 교회에 그녀의 주인을 불순종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도 않습니다. 셋째, 캠벨을 다시 인용하면, 결혼은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되고, 선동되고, 지속되며, 신부는 그의 보살핌을 받는 자로 식별됩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구세주이시며, 에베소서 5:23,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5:25.

그는 그녀를 흠 없이 자신에게 드리기를 위해 그녀를 거룩하게 만듭니다(26, 27절). 그는 공급과 보살핌을 통해 그녀를 지탱합니다(29절). 더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에게 보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주목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그녀의 구혼자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를 결혼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은유의 요점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음,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함, 그림과 주제, 몸, 성전, 그리고 결혼입니다.